

무주반딧불축제 변신 기대

주제 프로그램 강화, 시설·프로그램 운영체계 등도 보강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가 8월 26일 개막을 앞두고 새로운 변신을 예고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의 메인이자 인기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탐사에는 '스페셜 반딧불원정대'를 추가했다. 함께 동행하는 곤충학자에게 반딧불이의 생태와 일생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가 초·중학생들에게는 탐사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많은 사람은 받았지만 반딧불이축제에 추구하는 생명존중과 환경보존에 반해 이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적돼 왔던 '남대천 송어잡기'는 과감히 폐지했다. 그 대신 '남대천 생명플러스' 프로그램을 신설, 반딧불이의 먹이인 토종다슬기와 치어 방류 행사를 진행한다.

전통방식의 '여치집 만들기'도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들어진 여치 집에는 귀뚜라미를 담아 아이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CNN go가 극찬한 남대천 썰다리에서는 인생여행을 재연하는 신혼행렬과 상여행렬에 나뉘는 특별한 특별한 감동을 준비했으며 올해는 '전통 의상 입고 썰다리 걸어보기' 체험을 추가해 보다 색다른 체험거리가 될

전망이다.

나뉘는 기존 4회에서 6회까지 연장에 시연한다. 안성나뉘(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56호)는 무주군 안성면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시연까지 해 화제가 되고 있으며 남대천에 어리는 불빛과 바람에 흩날리는 불꽃, 그리고 나뉘를 타고 흐르는 대금의 선율이 어우러져 큰 감동을 준다.

한풍루(전라북도 시도유형문화재 제19호) 일대는 무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의 향 체험마당'이 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무주문화원과 생화학예술통화, 공예인협회 회원들이 마련한 무주 색 짙은 다양한 체험거리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반디별 찾기'와 자연을 벗 삼아 힐링할 수 있는 '산골이동도서관', 드론을 배우볼 수 있는 '반디드론캠프', 첨단장비를 이용해 태권도를 즐기는 '태권도 VR관'이 마련되며 남대천 야경과 밤바람을 즐기면서 낭만을 이야기하는 '남대천 포차 다리'도 이번 축제의 새로운 풍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딧불이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연의 빛을 상징하는 녹색 리브라트, 생명의 빛을 상징하는 붉은색 리브라트, 미래의 빛을 나타내는 노란색 리브라트' 머리핀을 꽃도록 하는 것

도 무주군은 방문객들이 서로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끼는 동시에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전과 달리 각종 운영부스를 축제측면으로 배치하고 중앙에는 컴퓨터와 포토존이 어우러진 '자연의 나라 생태체험장'을 마련했으며 초기부스에는 박 농콜을 올려 정감넘치는 고향의 풍경을 만들었다.

정기열차를 운행(임시주차장~축제장)해 방문객들의 이동편의를 돕는 한편, 종합안내소 옆에는 외국인 전용 안내소를 두고 외국인들의 축제 관람과 체험을 도울 예정이다.

태권도와 연계한 외국인 팝 투어도 운영한다.

한편, 무주반딧불이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로 꼽히는 개막식(8.26. 19:30~)은 총 3막으로 진행되며 1막은 군민과 출향인 그리고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져 무주군청 앞에서부터 등나무운동장까지 행진하는 반디길놀이로 펼쳐진다.

등나무운동장 특별무대에서 진행되는 2막은 그룹별 참가자 퍼포먼스와 창작공연으로, 마지막 3막은 남대천을 배경으로 나뉘, 소망풍등, 불꽃놀이 순서로 화려한 빛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용담호 해바라기 꽃길 걸어요'

진안 금지배넬실·양지마을 '통일해바라기 축제' 14일 개막

제2회 통일해바라기 축제가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진안군 상전면 금지배넬실·양지마을에서 열린다.

통일해바라기 축제는 금지배넬실·양지마을 주민들이 직접 꽃을 심고 가꿔 여는 소박한 축제다. 축제기간 이곳을 찾으면 용담호 인근 14.2ha의 밭에 활짝 핀 해바라기 꽃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꽃길 곳곳에는 포토존이 설치되며, 마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된다. 해바라기 호 효과를 만드는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연주회와 다양한 체험행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배넬실 마을'은 1990년에 용담댐을 건설하면서 수몰된 금지마을과 양지마을 주민 100여 가구가 새로 이주해 생성된 곳이다.

마을 주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농경지를 어렵게 경작하며 다시 본래의 마을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봄이면 유채꽃이 여럿이면 해바라기 꽃이 마을 곳곳에 활짝 피어나고 있다.

100여명의 마을 주민들은 지난 5월 유채꽃 축제가 끝나자마자 해바라기 축제를 위해 힘을 모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내년도 예산편성 위해 설문조사·주민의견수렴 실시

진안군은 효율적인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설문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은 진안군 홈페이지(www.jinan.go.kr-참여마당-설문조사)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설문조사지·주민의견서를 직접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내용은 국정과제 추진과 재정운영방향 등 3개 분류 11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주민의견서에는 예산편성 관련 모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수렴된 의견 중 설문조사 내용은 정책자료로만 활용되고, 주민의견서를 통해 제안된 사업 등은 지역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소관부서의 검토 후 내년도 예산 심의자료에 포함된다.

이항로 군수는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다수의 군민이 희망하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일자리 추경 확보 자체사업 발굴 회의 개최

무주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추경에 따른 자체사업 발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일자리 주요 정책에 맞춰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청 각 실과원소 주무담당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일자리 관련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일자리 자체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의견을 냈다.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 일거리의 질을 우선 높이기로 했으며 채용업 교육과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 산업경제과 백선미 일자리 담당은 "일 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 만들어 지는 데는 우리 군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좋은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노력과 변화가 결국은 부자되는 군민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전했다.

일자리 자체사업발굴을 위해 무주군은 앞으로 지역현실을 반영한 일자리 발굴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국가예산확보에도 주력해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생태계교란식물 제거활동 전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덕유산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시키는 외래식물에 대한 제거 활동을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전개해왔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식물이란, 외래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지정하여 법정관리하고 있는 식물로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 등 14종이 있으며, 덕유산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돼지풀은 왕성한 생육으로 토착종의 생육을 방해하고, 번식력이 높아 탐방로, 경작지, 목초지 등에 쉽게 번성하여 서식지 확산이 우려되는 종으로 8월~9월 노란색 꽃가루를 날리며 알레르기성 비염과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생태계교란식물은 결실기인 9월~10월 이전까지 뿌리째 뽑기를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공원의 건강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덕유산국립공원 내 생태계 교란을 야기시키는 외래식물에 대한 제거 활동을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전개해왔다고 밝혔다.

생태계보호를 위하여 새만금지방환경청, 자원활동가, 대한적십자 봉사회, 야생생물보호단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덕유대야영장 일원 돼지풀과 원추천인국 서식지 1,300㎡를 제거했다. 김재규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생태계교란 및 외래식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는 생물학적 방제를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청소년 '내 고향 바로알기 역사탐방' 진행

진안군은 5일부터 10일까지 5박 6일간 관내 초·중·고등학생 100여명이 자전거를 이용해 지역 내 4개 면을 탐방하는 '내 고향 바로알기 역사탐방'을 진행한다.

내 고향 바로알기 역사탐방은 학생들에게 지역을 돌며 진안군의 생태자원과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백운, 마령, 성수, 진안읍을 탐방한다. 이곳의 역사와 생활, 아름다운 경관을 둘러보며 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애郷심을 심어주는 뜻깊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주요 행사 일정은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한 지역 탐방, 고원길 걷기, 농가 일손돕기, 요리경연대회, UCC제작 등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휘트

국제대회 디수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휘트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휘트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삿포로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 휘트